

# 17

## 비사인주기파

### 17.1 비사인주기파

### 17.2 푸리에급수에 의한 비사인파의 전개

### 17.3 푸리에급수의 예

### 17.4 비사인파에 대한 선형회로의 정상상태의 응답 연습문제

이제까지 우리는 주로 사인파(일종의 주기파)를 취급하였다. 그러나 비사인주기파도 공학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그 성질과 이런 파형에 대한 선형회로의 응답을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그런데 이 장에서 배우겠지만 어떠한 파형의 주기파라도 이것을 상이한 주파수를 갖는 여러 개의 사인파의 합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회로가 선형이면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 성분사인파에 대한 시간적 응답을 보통의 교류회로이론에 의하여 구하고 그 결과를 합함으로써 비사인주기파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다.

이 장의 목적은 비사인주기파를 여러 개의 사인파의 합으로써 표시하는 방법 — 이것을 **푸리에분석**(Fourier analysis)이라 함 — 과 비사인주기파에 대한 선형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데 있다. 초학자에게는 불필요한 복잡한 수식유도를 생략하는 대신 푸리에급수의 응용면을 중시하면서 기술한다.

## 17.1 비사인주기파

2개 또는 그 이상의 상이한 주파수의 사인파를 합하면 비사인파가 생긴다. 특히 어떤 주파수의 사인파  $f_1(t)$ 가 그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  $f_i(t)$  ( $i = 2, 3, 4, \dots$ )들을 합하면  $f_1(t)$ 와 동일한 주기를 갖는 비사인파가 얻어진다. 이때  $f_1(t)$ 를 **기본파(fundamental wave)**,  $f_i(t)$ 를 **고조파(harmonics)**라고 한다. 그림 17.1의 (a), (b)는 각각 기본파와 제2고조파, 기본파와 제3고조파를 합해서 비사인주기파가 얻어짐을 보인다. 이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폭, 위상관계를 갖는 많은 고조파를 합함으로써 실로 다양한 파형의 **비사인주기파(non-sinusoidal periodic wave)**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. 반대로 임의의 비사인주기파는 이와 동일한 주기를 갖는 기본파와 그 정수배의 주파수(정수분의 1의 주기)를 갖는 고조파들과의 합으로써 나타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. 다음 절에서는 비사인주기파(이하 단순히 비사인파라 부르겠음)의 성분주파수의 진폭 및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. 사인파가 비선형소자(다이오드, 과구동 또는 스위칭되는 트랜지스터, 또는 철심변압기 등)에 인가되면 비사인파가 생기고 또 실험실에서 쓰는 function generator는 각종 비사인주기파를 발생시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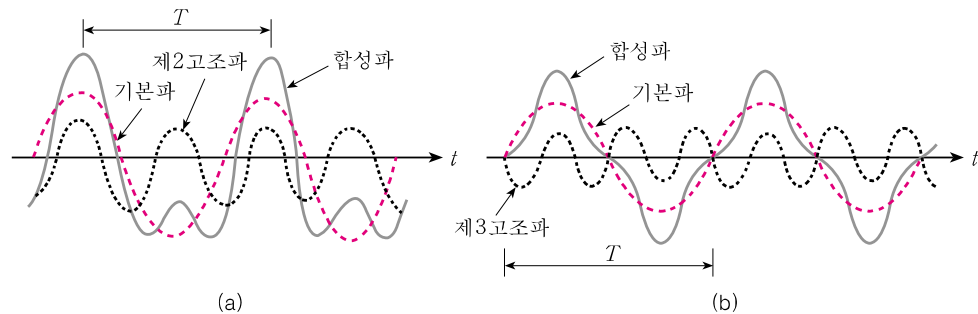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1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

## 17.2 푸리에급수에 의한 비사인파의 전개

일반적으로 주기  $T$ 인 비사인파를  $f(t)$ 라 하면

$$f(t) = f(t + T) \quad (17.1)$$

이고, 이것은 다음과 같은 **푸리에급수(Fourier series)**로 전개할 수 있다.

$$f(t) = a_0 + a_1 \cos \omega_0 t + a_2 \cos 2\omega_0 t + \dots + a_n \cos n\omega_0 t + \dots \\ + b_1 \sin \omega_0 t + b_2 \sin 2\omega_0 t + \dots + b_n \sin n\omega_0 t + \dots$$

$$\text{또는} \quad f(t) = a_0 + \sum_{n=1}^{\infty} a_n \cos n\omega_0 t + \sum_{n=1}^{\infty} b_n \sin n\omega_0 t \quad (17.2)$$

여기서  $\omega_0$ 는 비사인파의 주기  $T$  및 주파수  $f_0$ 와 다음 관계를 갖는다.

$$\omega_0 = \frac{2\pi}{T} = 2\pi f_0 \quad (17.3)$$

비사인파가 주어지면 그 주기, 따라서 각주파수  $\omega_0$ 를 알 수 있으므로 푸리에 급수 전개에서 각 계수들 — 이것을 **푸리에계수**라고 함 — 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. 유도는 생략하고 결과만 적으면

$$a_0 = \frac{1}{T} \int_0^T f(t) dt = \frac{1}{2\pi} \int_0^{2\pi} f(\omega_0 t) d(\omega_0 t) \quad (17.4)$$

$a_0$ 는 주기함수의 1주기간의 평균치이고 이것을 보통 **직류성분**이라고 한다. 이 일정한  $a_0$ 는 파형의 관찰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.

$$a_n = \frac{2}{T} \int_0^T f(t) \cos n\omega_0 t dt = \frac{1}{\pi} \int_0^{2\pi} f(\omega_0 t) \cos n\omega_0 t d(\omega_0 t) \quad (n = 1, 2, 3, \dots) \quad (17.5)$$

$$b_n = \frac{2}{T} \int_0^T f(t) \sin n\omega_0 t dt = \frac{1}{\pi} \int_0^{2\pi} f(\omega_0 t) \sin n\omega_0 t d(\omega_0 t) \quad (n = 1, 2, 3, \dots) \quad (17.6)$$

푸리에급수식 (17.2)에서 동일주파수의  $\cos$  항과  $\sin$  항을 결합하면  $\sin$  항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. 즉, 식 (7.23)의 유도과정을 거치면

$$f(t) = a_0 + \sum_{n=1}^{\infty} c_n \sin(n\omega_0 t + \theta_n) \quad (17.7)$$

$$\text{단,} \quad c_n = \sqrt{a_n^2 + b_n^2} \quad (n = 1, 2, 3, \dots) \quad (17.8)$$

$$\theta_n = \tan^{-1} \frac{a_n}{b_n} \quad (n = 1, 2, 3, \dots) \quad (17.9)$$

식 (17.7)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의의 주기함수는 그 평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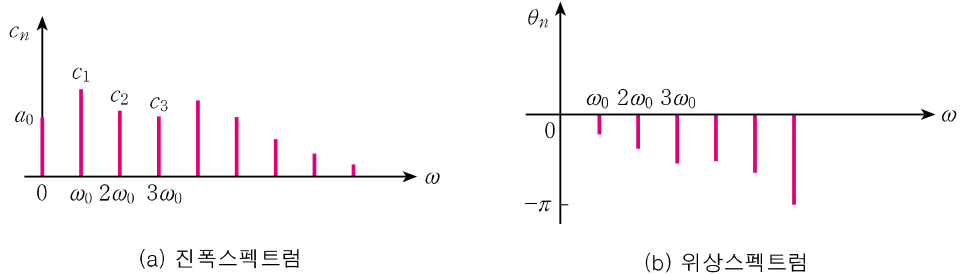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2 주파수스펙트럼의 한 예

(즉, DC 성분), 주기함수와 동일주파수를 갖는 사인파(즉, 기본파) 및 그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(즉, 고조파)로 분해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분해하는 것을 **푸리에분석** 또는 **조파분석**(harmonic analysis)이라고 한다. 각 성분파의 진폭과 위상은 각각 식 (17.8), (17.9)로 주어진다.

$c_n$ 의 크기와  $\theta_n$ 을 주파수에 대하여 그린 그래프를 각각 **진폭스펙트럼**, **위상스펙트럼**이라고 부르며, 양자를 병치하여 **주파수스펙트럼**이라고 한다. 이 그래프들이 선으로 될 것은 명백하다. 그림 17.2는 주파수스펙트럼의 일례로,  $\omega = 0$ 에 대한 것은 DC 성분이며 많은 경우 진폭스펙트럼만이 문제된다. 위상스펙트럼은 시간원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. 주기함수의 주기  $T$ 가 증가할수록(즉,  $\omega_0$ 가 감소할수록) 스펙트럼 간격이 좁아진다.

### 예제 17.1

그림 17.3 (a)에 표시된 정구형파를 푸리에급수로 전개하여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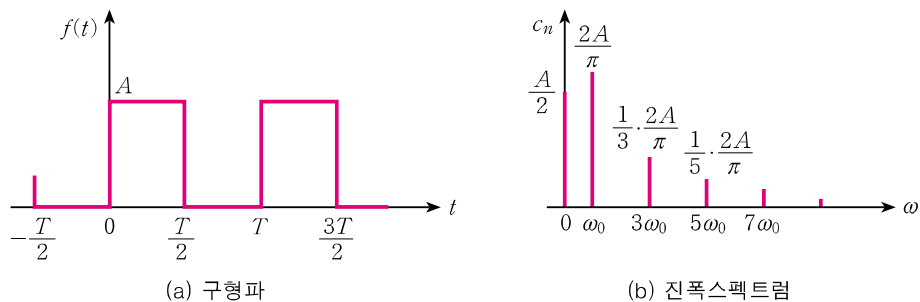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3 예제 17.1의 그림

### 풀이

먼저 주어진 파형에 대한 1주기(간  $0 < t < T$ )의 표시식을 쓴다.

$$f(t) = \begin{cases} A, & 0 < t < T/2 \\ 0, & T/2 < t < T \end{cases}$$

DC 성분은 파형의 관찰로부터

$$a_0 = \left( A \times \frac{T}{2} \right) / T = \frac{A}{2}$$

다음에  $\cos$  항의 계수  $a_n$ 은 식 (17.5)에 의하여

$$\begin{aligned} a_n &= \frac{2}{T} \int_0^T f(t) \cos n\omega_0 t dt = \frac{2}{T} \int_0^{T/2} A \cos n\omega_0 t dt \\ &= \frac{2A}{n\omega_0 T} [\sin n\omega_0 t]_0^{T/2} = \frac{A}{n\pi} \sin n\pi = 0 \end{aligned}$$

즉,  $\cos$  항은 없다. 마지막으로  $\sin$  항의 계수  $b_n$ 은 식 (17.6)에 의하여

$$\begin{aligned} b_n &= \frac{2}{T} \int_0^T f(t) \sin n\omega_0 t dt = \frac{2}{T} \int_0^{T/2} A \sin n\omega_0 t dt \\ &= \frac{2A}{n\omega_0 T} [-\cos n\omega_0 t]_0^{T/2} = \frac{A}{n\pi} (1 - \cos n\pi) \\ &= \begin{cases} 0 & ; n=2, 4, 6, \dots \\ \frac{2A}{n\pi} & ; n=1, 3, 5, \dots \end{cases} \end{aligned}$$

이상으로

$$f(t) = \frac{A}{2} + \frac{2A}{\pi} \left( \sin \omega_0 t + \frac{1}{3} \sin 3\omega_0 t + \frac{1}{5} \sin 5\omega_0 t + \dots \right) \quad (17.10)$$

여기서  $\omega_0$ 는 정구형파의 주기  $T$ 와  $\omega_0 = 2\pi/T$ 의 관계가 있다. 이 파의 진폭스펙트럼은 그림 17.3 (b)와 같다. 모든  $n$ 에 대하여  $\theta_n = 0$ 이므로 위상스펙트럼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.

## 17.3 푸리에급수의 예

대표적인 비사인파에 대한 푸리에급수 전개식을 들고 진폭스펙트럼을 그린다.

【예 1】 구형파(그림 17.4)

$$f(t) = \frac{4}{\pi} A \left( \sin \omega_0 t + \frac{1}{3} \sin 3\omega_0 t + \frac{1}{5} \sin 5\omega_0 t + \dots \right) \quad (17.11)$$

[식 (17.10)과 비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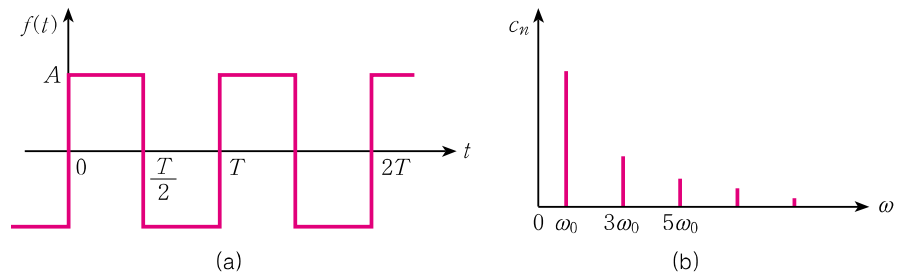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4 구 형 파

【예 2】 톱니파(그림 17.5)

$$f(t) = \frac{2}{\pi} A \left( \sin \omega_0 t - \frac{1}{2} \sin 2\omega_0 t + \frac{1}{3} \sin 3\omega_0 t - \dots \right) \quad (17.12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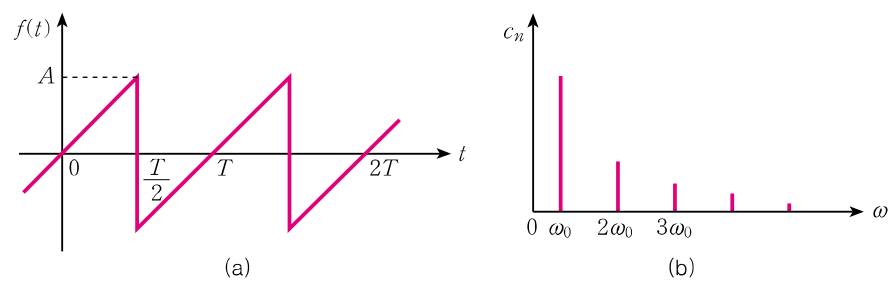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5 톱 니 파

【예 3】 삼각형파(그림 17.6)

$$f(t) = \frac{8A}{\pi^2} \left( \sin \omega_0 t - \frac{1}{3^2} \sin 3\omega_0 t + \frac{1}{5^2} \sin 5\omega_0 t - \dots \right) \quad (17.13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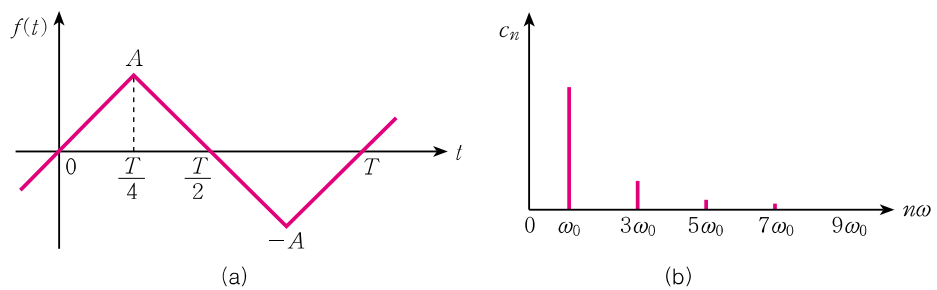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6 삼 각 형 파

## 【예 4】 반파정류파(그림 17.7)

$$f(t) = \frac{A}{\pi} + \frac{A}{2} \cos \omega_0 t + \frac{2A}{\pi} \left( \frac{1}{3} \cos 2\omega_0 t - \frac{1}{3 \cdot 5} \cos 4\omega_0 t + \frac{1}{5 \cdot 7} \cos 6\omega_0 t - \dots \right) \quad (17.14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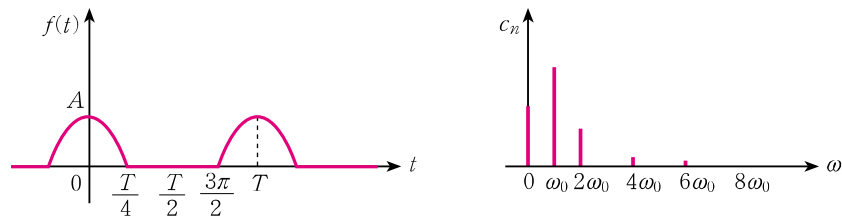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7 반파정류파

## 【예 5】 전파정류파(그림 17.8)

$$f(t) = \frac{2A}{\pi} + \frac{4A}{\pi} \left( \frac{1}{3} \cos 2\omega_0 t - \frac{1}{3 \cdot 5} \cos 4\omega_0 t + \frac{1}{5 \cdot 7} \cos 6\omega_0 t - \dots \right) \quad (17.15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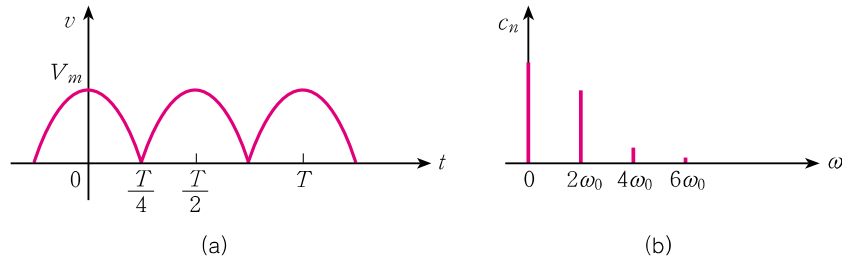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8 전파정류파

비사인주기파  $f(t)$ 의 푸리에급수에서 성립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증명 없이 나열한다.

## 1. 대칭성

- (1)  $f(t)$ 가 짝함수이면, 즉  $f(t) = f(-t)$ 이면 그 푸리에급수는  $\sin$  항을 갖지 않는다 — 식 (17.14), (17.15).
- (2)  $f(t)$ 가 홀함수이면, 즉  $f(t) = -f(-t)$ 이면 그 푸리에급수는  $\cos$  항을 갖지 않는다 — 식 (17.11), (17.12), (17.13).

- (3)  $f(t)$ 가 반파대칭이면, 즉  $f(t) = -f\left(t \pm \frac{T}{2}\right)$ 이면 그 푸리에급수는 짝수 고조파성분을 갖지 않는다 — 식 (17.11), (17.13).

## 2. 파형의 이동(shift)

- (1)  $f(t)$ 의 파형을 상하로 이동시키면 DC 성분만 변할 뿐, 다른 스펙트럼(진폭 및 위상)은 불변이다.
- (2)  $f(t)$ 의 파형을 좌우로(시간축에 따라서) 이동시키면 위상스펙트럼만이 변한다.

### 예제 17.2

그림 17.6에 대한 삼각형파의 푸리에급수가 식 (17.3)과 같이 됨을 유도하라.

#### 풀이

관찰에 의하여 이 주기파는 기함수인 동시에 반파대칭임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그 푸리에급수의 전개식은  $n$ 이 기수인  $b_n$ 항만 포함된다. 그리고 그 계수를 구하는 데는  $1/4$ 주기만 평균하여 2배하여 주면 된다. 즉,

$$b_n = \frac{8}{T} \int_0^{T/4} f(t) \sin n\omega_0 t dt \quad (n = 1, 3, 5, \dots)$$

$$f(t) = \frac{4A}{T}t, \quad 0 \leq t \leq T/4$$

$$\begin{aligned} \text{이므로} \quad b_n &= \frac{32A}{T^2} \int_0^{T/4} t \sin n\omega_0 t dt \\ &= \frac{32A}{T^2} \left[ \frac{1}{n^2\omega_0^2} \sin n\omega_0 t - \frac{1}{n\omega_0} t \cos n\omega_0 t \right]_0^{T/4} \\ &= \frac{8A}{n^2\pi^2} \sin \frac{n\pi}{2} \quad (n : \text{기수}) \\ &= \begin{cases} \frac{8A}{n^2\pi^2} & ; \quad n = 1, 5, 9, \dots \text{일 때} \\ -\frac{8A}{n^2\pi^2} & ; \quad n = 3, 7, 11, \dots \text{일 때} \end{cases} \end{aligned}$$

$$\text{그러므로} \quad f(t) = \frac{8A}{\pi^2} \left[ \sin \omega_0 t - \frac{1}{3^2} \sin 3\omega_0 t + \frac{1}{5^2} \sin 5\omega_0 t - \dots \right]$$

## 17.4 비사인파에 대한 선형회로의 정상상태의 응답

앞의 두 절에서 우리는 비사인파를 푸리에급수로 전개함으로써 비사인파의 실효치, 전력 등이 각 성분파의 그것들에 의하여 간단하게 표시됨을 알았다. 선형



회로해석에서의 조파분석의 중요성은 이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. 즉, 선형회로에서는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비사인파에 대한 정상상태의 응답을 구하려면

- (1) 전원함수(전원전압 또는 전원전류의 시간함수를 의미함)를 조파분석하고
- (2) 각 성분파에 의한 응답을 개별적으로 구하고
- (3) 그 각 응답의 순간치표시를 합하면 된다.

이 제 2 과정에서 각 성분파는 사인파이므로 우리는 페이지를 이용하는 보통의 교류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. 주의할 것은 제 3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각 조파의 순간치를 합해야 하며, 그들의 페이지를 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. 그것은 각 조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.

### 예제 17.3

그림 17.9 (a)는 정류기의 출력의 맥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이는 필터회로이다. 정류기의 출력전압(= 필터의 입력전압)이 그림 (b)와 같이 최대치  $V_m$ , 60Hz의 전파정류기일 때  $200\Omega$  부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의 순간치표시식을 구하고 파형을 그려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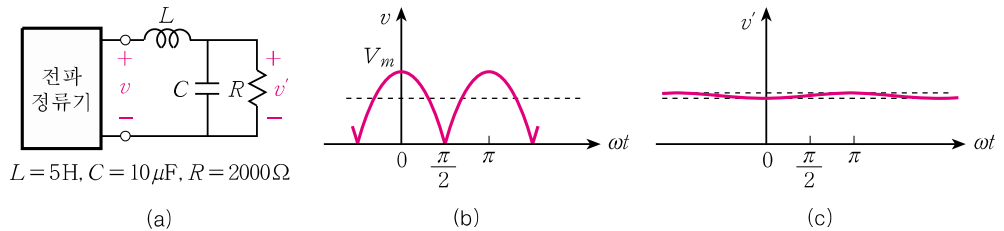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9 저역통과필터회로

### 풀이

우선 필터의 입력전압을 푸리에급수로 전개하면[식 (17.15)]

$$v = \frac{2V_m}{\pi} + \frac{4V_m}{\pi} \left( \frac{1}{3} \cos 2\omega_0 - \frac{1}{15} \cos 4\omega_0 t + \frac{1}{35} \cos 6\omega_0 t - \dots \right)$$

여기서  $\omega_0 = 377 \text{ rad/s}$

이 회로의 전달전압비를  $H(j\omega)$ 라 하면 전압분배의 법칙에 의하여

$$H(j\omega) = \frac{V'}{V} = \frac{\frac{R}{j\omega RC + 1}}{j\omega L + \frac{R}{j\omega RC + 1}} = \frac{1}{1 - \omega^2 LC + j\omega L/R}$$

주파수는 기본주파수의 정수배인 불연속적인 값을 취하므로 윗식에서  $\omega = n\omega_0$ 라 놓고

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

$$\begin{aligned} H(jn\omega_0) &= \frac{V'}{V} \Big|_{\omega=n\omega_0} = \frac{1}{1 - n^2\omega_0^2 LC + jn\omega_0 L/R} \\ &= \frac{1}{1 - n^2 \times 7.11 + jn \times 0.943} \end{aligned}$$

이것을 각 성분주파수( $n=0, 2, 4, \dots$ )에 대하여 계산하여 아래 표를 얻는다. 단, 사인파의 페이지표시는  $A \cos \omega_0 t$ 를  $A/0^\circ$ 로 하였다(구태여  $A/90^\circ$ 로 할 필요가 없다).

$n$	0	2	4
$V_n$	$\frac{2 V_m}{\pi}$	$\frac{4 V_m}{\pi} \frac{1}{3} / 0^\circ$	$-\frac{4 V_m}{\pi} \frac{1}{15} / 0^\circ$
$H_n$	1	$0.0364 / -176.1^\circ$	$0.0093 / -178.1^\circ$
$V'_n = H_n V_n$	$\frac{2 V_m}{\pi}$	$\frac{2 V_m}{\pi} 0.0242 / -176.1^\circ$	$-\frac{2 V_m}{\pi} 0.0012 / -178.1^\circ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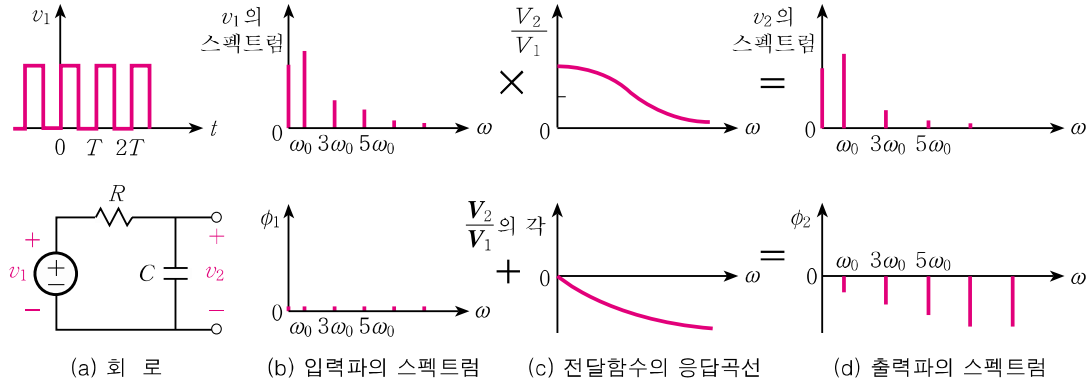
이상으로

$$v'(t) = \frac{2 V_m}{\pi} [1 + 0.0242 \cos(2\omega_0 t - 176.1^\circ) - 0.0012 \cos(4\omega_0 t - 178.1^\circ) + \dots]$$

그림 17.9 (c)에는 출력전압의 시간적 변화를 그렸다. 여파기의 입력파가 리플(ripple; 맥동)이 심한 전파정류파인 데 반하여 출력파는 거의 리플이 없는 DC이다. 제 2 고조파(120Hz)는 DC 성분의 2.4%, 제 4 조파는 0.12%밖에 안된다. 한편 DC 성분은 입력측에서나 출력측에서 동일하다 — 이것은 DC 전압에 대해서는  $L$ 은 단락상태,  $C$ 는 개방상태가 되기 때문이다. 이 회로에서  $\omega = 2\omega_0$ 에 대하여  $X_L$ 이  $R \parallel C$ 의 임피던스에 비하여 크면 리플전류는 감소되고,  $|X_C| \ll R$ 이면 그것이  $C$ 로 바이패스(by-pass)되므로 리플전압이 적어진다.

###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의 해석

위의 예제에서 보듯이 입력파에 포함된 각 고조파는 회로에 의하여 변화를 받아서 출력에 나타난다. 더 자세히 말하면  $|V'_n| = |H_n| |V_n|$ 이므로 출력파의 각 고조파의 진폭은 이에 대응하는 입력파의 고조파의 진폭에 그 주파수에서의 전달함수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고, 또  $\angle V'_n = \angle H_n + \angle V_n$ 이므로 출력파의 각 고조파의 위상각은 이에 대응하는 입력파의 고조파의 위상각에 그 주파수에서의 전달함수의 각을 합한 것과 같다. 이것을 주파수스펙트럼을 빌어서 달리 표현하면 출력파의 진폭스펙트럼의 각 선의 길이는 입력파의 진폭스펙트럼의 길이에 진폭응답곡선의 그 주파수에서의 높이를 곱한 것과 같고, 또 출력파의 위상스펙

그림 17.10  $R-C$  회로의 주파수응답과 주파수스펙트럼

트럼의 각 선의 길이는 입력파의 위상스펙트럼의 길이에 위상응답곡선의 그 주파수에서의 값을 합한 것과 같다.

그림 17.10은  $R-C$  회로의 입력측에 구형파의 전압이 가해질 때  $C$ 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파의 주파수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( $R-C$  회로의 주파수응답곡선은 그림 14.2 참고).

이와 같이 신호전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함수로서의 입력신호파가 회로에 의하여 어떠한 변화를 받아서 출력측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구명하는 것보다 입력파의 주파수스펙트럼이 회로에 의하여 어떠한 변화를 받는가 하는 것을 구명하는 것이, 즉 시간영역(time domain)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파수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취급하기 쉽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. 가령 예제 17.3의 필터문제에서 우리는 출력전압의 시간함수의 완전한 표시식이거나 또는 출력전압의 정확한 파형 자체보다는 출력파에 포함된 리플전압의 개략치만 알면 되는 것이며, 이것은 입력파의 제 2 고조파의 진폭에 전달함수의 이 주파수에서의 크기를 곱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.

#### 예제 17.4

그림 17.11 (a)에서 전류원은 높이  $I$ , 기본주파수  $\omega_0$  인 구형파를 발생한다. 병렬회로의 공진주파수가  $3\omega_0$  일 때

- 정확한 해석에 앞서 출력전압  $v$ 의 파형에 대하여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?
- 공진회로의  $Q$ 가 10일 때  $\omega = \omega_0, 3\omega_0, 5\omega_0$ 에서의 출력파의 주파수성분을 구하라.

#### 풀이

- 주파수영역에서 고찰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. 그림 (b)의 입력전류파의 스펙트럼[식 (17.10) 참조]과 그림 (c)의 병렬공진회로의 임피던스의 주파수특성을 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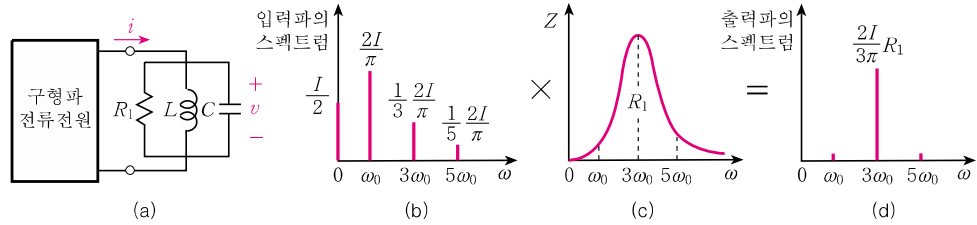


그림 17.11 구형파전류원으로 구동되는 병렬공진회로( $i$ 는 높이  $I$ 인 구형파)

합으로써 출력전압의 스펙트럼이 그림 (c)와 같이 얻어진다. 공진회로의  $Q$ 가 클수록 공진곡선이 더 좁아지므로  $\omega = \omega_0, 5\omega_0, 7\omega_0, \dots$  등에서의 출력파의 진폭이 공진주파수  $3\omega_0$ 에서의 진폭에 비해서 작아지고, 따라서 출력전압은 진폭  $\frac{2I}{3\pi}R_1$ 인 순사인파에 가까워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. 즉,  $Q$ 를 매우 크게 하면 구형파로부터 그 3배 주파수의 순사인파를 얻을 수 있다.

- (b) 병렬공진회로의 임피던스는 식 (15.5)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. 이 문제에서 공진주파수는  $3\omega_0$ 이므로

$$\left. \frac{Z}{R_1} \right|_{\omega=\omega_0} = \frac{1}{\sqrt{1+10^2\left(\frac{1}{3}-3\right)^2}} = 0.0375$$

$$\left. \frac{Z}{R_1} \right|_{\omega=5\omega_0} = \frac{1}{\sqrt{1+10^2\left(\frac{5}{3}-\frac{3}{5}\right)^2}} = 0.0933$$

따라서 출력전압의 주파수성분은 공진주파수  $3\omega_0$ 에서의 진폭  $\frac{2I}{3\pi}R_1 = V_0$ 라 할 때

$$\left. \frac{V}{V_0} \right|_{\omega=\omega_0} = 3 \times 0.0375 = 0.113$$

$$\left. \frac{V}{V_0} \right|_{\omega=5\omega_0} = \frac{3}{5} \times 0.0933 = 0.056$$

연/습/문/제

17.1 다음 각 함수의 곡선을 그려라.

(a)  $f(t) = 100 \sin \omega t + 5 \cos 2\omega t$

(b)  $f(t) = 100 \sin \omega t + 5 \sin(3\omega t + 60^\circ)$

17.2 입 · 출력 관계가  $v_o = kv_i^2$ 과 같이 표현되는 비선형소자에 입력  $v_i = V_0 + V_1 \sin \omega t$ 를 인가할 때 나타나는 출력  $v_o$  (그림 p 17.2)의 DC 성분, 기본파성분, 제 2 고조파성분을 구하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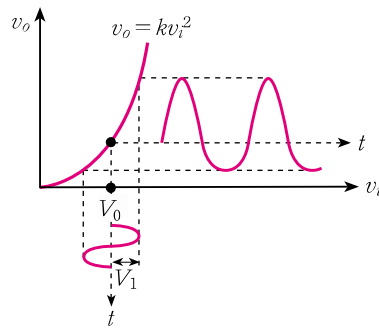


그림 p 17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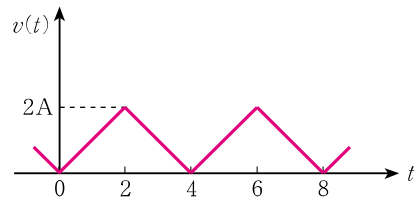


그림 p 17.3

17.3 그림 p 17.3의 주기파형에 대한 푸리에급수의 계수( $a_0, a_n, b_n$ ) 중에서 어떤 것들이 0이 되는지 파형의 대칭성에 의하여 판단하라. 또 세로축을  $t = 1$ 만큼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?

17.4 그림 17.6을  $A$ 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킨 파형에 대한 푸리에급수의 표시식을 써라.

17.5  $R$ - $C$  직렬회로에  $v = 10 + 10 \cos \omega_0 t + 5 \cos 3\omega_0 t$ 로 표시되는 전압이 인가될 때 정상상태에서  $C$ 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의 순간치표시식을 구하라. 단,  $R = 1/\omega_0 C$ 이라고 한다. (힌트 : 중첩의 정리 이용)

17.6 그림 17.4의 구형파전압(주기는  $2\pi$  ms 라고 함)이  $R = 5 \Omega$ ,  $L = 1$  mH의 직렬 회로에 인가될 때  $R$ 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에 대한 진폭 및 위상스펙트럼을 그려라.

- 17.7 그림 p 17.7의 필터회로에서 입력전압이 60Hz 반파정류일 때 출력전압에서의 제 2 및 제 4 고조파성분의 직류성분에 대한 비를 구하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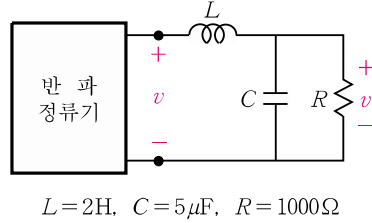


그림 p 17.7

- 17.8 주기가 1ms 인 구형파전압을  $R = 10\Omega$ ,  $L = 27\text{mH}$ ,  $C = 10.8\mu\text{F}$ 의 직렬회로에 인가할 때  $C$ 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의 파형에 대하여 정확한 계산에 앞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? 출력전압의 진폭스펙트럼을 그려서 생각하라.

- 17.9 그림 p 17.9 (a)의 적분기의 입력에 그림 (b)의 구형주기파를 인가할 때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전압  $v_o(t)$ 의 표시식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.

- (a)  $v_o = -\frac{1}{RC} \int v_i dt$ 의 관계를 이용하여  
(b)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17.4절의 방법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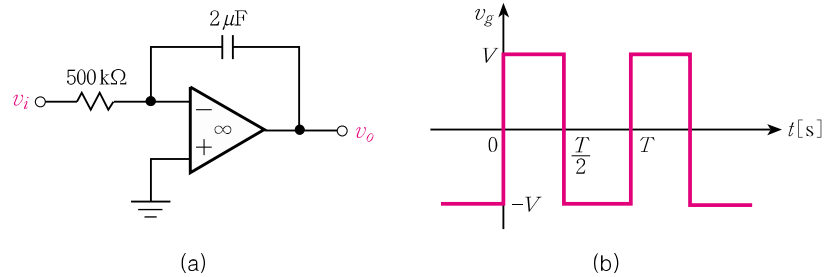


그림 p 17.9